

新小說

# 美人奇事



北京德興書林發行

165

Kodak Color Control Patches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3/Color Black

© Kodak, 2007 TM: Kodak



설  
선

미 인 과 스

(美人奇事)

1  
스 과 인 미  
기여름싸엿든비논어느덧키이여다엿서지고청々흔놀흔하늘에소슬(蕭瑟)할금풍  
(金風)은사름의낮에슬々부논드느진안키는산허리로핑그르들고석양(夕陽)슈폴  
에석소리는호르논시늉외석겨서점은경치를돕는디홀연드르니오々렬々(鳴咽)호  
우름소리가슈원군지々디(水原郡遲々臺)고키에서나는디가고오는형인들이하  
나식들식츄々모혀드러한물치가되엿더라디저일이잇셔야기록이잇고기록이잇셔  
야비록던자데후라도사름々々이다아는것은정훈리차라아지못게라저들린사름중  
무슴스단(事端)이드러는고충청도평원군(忠淸道平澤郡)남면옥슈동(南面玉樹  
洞)은산이병풍곳치들너잇고압헤시늉가호르니진짓산명슈려(山明水麗)흔성디  
강산이라동구로드러가며보면삼십여호대촌중에그중큰집두치가잇스니한집은김  
참의(金參議)집이오또한집은홍승지(洪承旨)집이라「이두사름이본리브러시골  
싱장이아니오환히(宦海)에돛이업서서로손목을잇글고이곳으로나려와경운조월  
(耕雲釣月)로세월을보느니참시속박게한가흔사름이되엿더라그러나이곳흔청복  
(淸福)중에다만근심되는것은일점에혈육이업서날마다셔로맛나면한탄을마지아  
나하더니하늘이도으심이든지홍승지의부인이티과가잇더니심삭이차디일기옥동  
을나으니홍승지가깃거위산모를위로하며「아이고이제야근심을노앗소야파하늘



이 우리 부수를 불상이여 과셨느보오 「글세 요나는 항상 두려워하기를 홍문(洪門)에 죄인이 될가 하였더니 천만의 외에 아즉 근심은 못케 되었느보오 「그러나 너 근심을 더릿지만 남의 걱정 생각이나 구려 「김참의 말씀이 오령감만겨 정이 아니라 그 부인을 위하야나 도주야로 바라고 잇소 「여보아 허일홍을 근식(瑾植)이라 하였소 혼면셔 조아하기를 마지아나 하며 김참의를 청하야 주연을 베풀고 취도록 마시면서 「네게 당하야 셔논이 만다 형이 업스나로 형을 위하야 도로 허마음이 섭々하오 「깃분일이 오우리가 피초에 바라던 일인디 누가 먼저 일우엇던지 이 늙어 갈고 비에이런 회한일이 잇소 이릿듯 담화하다가 주연을 물니 고집으로 도라오니 즈연 괴석이 쫓쳐 못흔지라 부인이 이르마지며 「웨무슴 불쾌한 일을 보앗소 주홍은 하느도 업고 도로 허셔 괴가 쫓쳐 못흔 모양이니 웬일이오 「오늘 조흔 친구와 놀다 오느길 인디 무슴 불쾌한 것을 불길이 잇소 「그러면 허산 집갓다 오섯구려 「그릿소 홍승지 집에갓다 왔느디 득남을 하였다고 그 조아하느모양이 야참하례 할만함디 다루리도 그런아 달하느만나 엇스면 무슴겨정이 잇겟소 하더니 한숨을 쟁이셔지도 록쉬느디 만일 부인이 그른사를 갓흐면 공연이 날셔임이나 하고 집안일은 엇더케 되던지 도라보지를 아나 하련만 본셔성정이 어질고 착하야 세상에 짝이 업느숙녀(淑女)라 그런고로 몇히 전보터가 장의게 권고하야 첩을어더즈식을 보라 하되 김참의가 부인의 정세를 생각하야 위로하듯지아나 하얏더라 이썩 부인이 김참의에 말을 뜻더니 별안간 무근 불덩이가 목거치 밀며 간장 썩은 물이 두눈으

로 평々 쏟아지니 손으로 치마 자락을 움켜쥐고 후々 늦겨 썩고 썩스면서 「전상에 무슴 원억한 일을 남의게 세쳤기에 이몸이 이렇듯 죄가 만아서 팔즈(八字)도 남과갓지 못하 고 데일겨 정이 조선의 불효를 세치겟스니 이런 집안에 못하노릇이 잇나 하고 셔름이 더욱(越) 북받쳐 밋고 덧느눈물이 한벌치 마를아 통지게하니 김참의가 가슴이 가충량업 셔위로 하야 전정을 식이느디 「여보아도 록비 감할것무엇잇소 죄는 무슴 죄며 불효는 무슴 불효란 말이요 「엇지 하야 죄와 불효가 아나야 요 불효삼천에 무후위디(不孝三千無後爲大)란 말도 잇고 철거지악에 무즈거(七去之惡無子去)라 하였스니 엇지 굽은 것이니 몸이 엇지 안소 그런고로 나가 항상 권고한 일은 나의 죄를 면분지 일이라 도버슬가 혼일인디 미양곳게 막고 용랍지아나 시니 이답々 혼가슴을 누라셔 풀쳐주어요 「글세 나느요량이 업셔셔 뜻지아나 하겟소 어느 집을 물논하 고 부즈형제가 불화(不和)하던지 필경 피가 망신(敗家亡身)하느것을 보면 미양이려한 일에서 나느고로 뜻을 굿게 하 고 겁히 밍셔함이 정히 이것을 위함이 오다른 일은 아나오 「이처럼 정디 할말슴을 엇지 겁히 사이지아나 하오릿가 마는 이는 진짓조선 향화(祖先香火)를 위함이오 다른 뜻이아나며 또네로 브터 정인 혼즈도 부득이 하면 형을 엇스오니 화송중에 잇느이 몸을 사랑하셔 거든한 번 결단하야 밋친 원을 푸러 주오 하면 셔비 감하기를 마지아나 하 고 저슴권하느지라 이릿듯 지성중에든 김참의는 침음양구(沉吟良久)에 마지 못하야 「그러면 부인의 방침(方針)을 맞겨 허코져하나 주선하야 줄사름이 업스니 형키도



어렵고 또 남의 우제가 되면 더운 낮을 들떠가 업슬 터이니 숨가조심할 일이나요  
 「그는 조금도 걱정이 업고 아조 조용이 할 길이었소」 무슴첩경이 잇단 말이요 「이달이  
 십삼일이 천정아 버님괴일(忌日) 인즉 올라가서 참셔도 하고 여러 사를 파의 룬을  
 면설마 디도 쳐서 그만 사람하느를 못구 할구요」 그야 이곳에서 듯보는 것보다  
 낫겠지 마는 암관하야 도둑마음에 썩다 갖치 안는 걸이오 「아이고 그런 말씀마 오임  
 의 결정할 일에 왜 또 말슴을 일으키라고 하오니 일식 전에 못떠나 겠소」 그러면 아모  
 조록 사름스려운 것이나 착실이 끝나 볼도리나 하오 부인이 깃거워 앓가 서지가 숨이 미  
 이느듯 하든 좇치 못하마 음은 구름과 안기 갖치다 스터져 업서지고 두쌔에 화려한 빛은  
 도화의 봄이 곱흔듯 그날 밤을 편이 쉬고 잇흔 날 일즉이 이러나 형장을 분별하느디 「이  
 이순덕이는 집안일을 보고 이단(二丹)이느냐와 함씩을 나가자 명보(明甫)와 을손(乙  
 孫)은 교즈를 씌이라 하 면서 김찰의를 향하야 「령감은 나 올라간 후 즉시 뒤쳐 집을 수  
 리정(鎭)하고 산짐을 도대강 정비(整備)하야 두오일이 되느디로 편지를 하오리다  
 「그는 녀려 말고 아 못조록 속히느려 오공연호일로 하여 집안일 낭피하오리다 당부를  
 하고 교즈티워 정거장(停車場)으로 넘어 보낸 후 처가 등절을 일신하게 준비할 적에 부  
 리는 사름 박흥모(朴興謨)는 런던성이 교활(天性狡猾)한 소년이라 본디 런던안군(天安  
 郡) 사름으로 상당한 업이 업고 인근음으로 도라다니며 주스청루에 종스(從事)를 하  
 앓는 고로 물을 사름이 별로 업고 또 한 장기(長技)가 잇스니 누구던지 한 번 스피면 비견

되임에 맞는 음식 갖하야 천홀스룩마음에 맞는 고로 이 사름도 조라져 사름도 조라하게  
 된간 스흔 무리라 우연이 김찰의를 천홀후 그 지절을 스랑하야 집에 머무러 두고 가스  
 를 위임하얏더라 일편 단심국은 마음이지공무스흔져 김찰의 부인은 평덕역에 이르러  
 교즈를 드려 보니 고이단이와 하가지 물을 괴츠(汽水)에 더져 남대문역에 디이니 즉시  
 안동(安洞) 천정(天正)으로 드려온다 이 역에 안동집에서는 제물을 츠리노라 분주골물하느  
 니 비즈삼월(婢子三月)이 가동스거리고 드려오면서 「평덕서 절한 마님이 오심나 다  
 로마님」 응정말이나 어디언미필에 부인이 이단을 뒤세우고 점자는 디도로 티청에  
 오르더니 옥산(玉山)을 미루어 모부인(母夫人)께 보이면서 「어마님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잘잇섯느냐 경향이 락스하야 조조디면치 못하느 셔운하마음을 주야 금치 못하느  
 이 처럼 네가 올라와야 잠시 맛느를 보나고나 「모든 집안일이 이 한몸에 가엿기여 잇  
 는고로 비록 괴츠길은 잇소 오나 임의로 썰늘수가 업습나다」 그리찰의 도평안하냐 편  
 지는 다달이 보지 만나느는 항상 궁궁하야 마음이 죄이더라 어셔 방으로 드려가 자어 제 밤  
 몽조가 조려니 오늘너를 마느는 구나 하 면서 방으로 인도하야 안지니 부인이 좌정후한  
 번들너보더니 「작년에 왓슬썩와다름 업서식구(食口)가 다 잇스되 한 사름이 업스니  
 그 동안 허고(解雇) 되엿습닛가」 한 사름이 누구이나 「침모(針母) 말씀이올시다」 허고  
 는 왜냐여 보낼 리도 업거니와 등을 밀면 나 같터이나 「그러면 나 드려하얏습나다 그러  
 「나 드려면 이만저만 하느나 드려인 줄아느조고 먹을 줄도 물으고 편히 디방 발싸 당에 흠



이아니붓게년즈마돌듯쉬일시평々도느느드리다「왜……무슨일이잇습닛가  
 「그런것이아니라제아우년이그동안소천(小天)을북망산으로보내고지금홀노잇는  
 디그것을위하답시고셔방인지남방인지어디쥬려여기가번져저기가번져머리에쓴  
 무릇기를버슬적이어업고일할것은티산곳치밀넛는디도모지도라다보지도아니한다  
 부인은쥬의가잇셔올나온터이라말씀듯기도유심이하고못기도긴착히한다「웨침  
 모가무숨과부동성이잇습닛가「네가그년아히적에도보앗습듯하디그동안이젓고  
 는웨장복님(張福姪)이리고모르니「예그것이발셔시집을가셔셔과부가되엿단말이  
 오닛가츄세상은잠간이올시다「그년이외모도똑々하고지질도홀만하고사름조츠  
 녕리(惺惺)하데다만팔자가스오노와저모양이되엿구는그러는너는그동안티과느  
 잇는나「티과가다무엇임잇가이왕났든사름도단산할썩가되엿는데요그러기에데  
 일적정남의집후스(後嗣)가천이게되오니이런낭패가잇스오며또는두사름의말리  
 신제가의탁할데가업슬터인즉그고독하야질일을싱각하오면시々썩썩로방을」  
 듯는눈물이키일줄을모름니다「그러하기에나도바라고원하야쥬야로쥬수하느니  
 네일인디무정호삼신(三神)은공편치가못하야아희를민줄디는사름의는죽으로실  
 어다가안기고는면고양이답알어르듯하사름의게는명신이라도하느를점지치아니  
 하니어런야속할데가잇는나「글세올시다이게무슨산수타인지전성에죄가만엇던  
 지고성을홀팔조닛가무엇인들뜻디로될리치가잇겟습닛가」허……하느님덕분에

미 인 기 스  
 7  
 을에나바라는디로되엿스면하더니삼월이를불너셔어육과채(魚肉菓菜)를스오  
 라장국을쓰려라한츄분별을하야상을츠려다듯코로부인이천히저를점고이것저것  
 권하야가며잔이야기굴근이야기못거니듯거나차미잇는중에서먹기를맞치고상을  
 막물닐즈음에뜰에서저벽」신소리가느더니「아이고귀치가아니하야못살겟셔  
 방문을펼적열고드러오더니「로마남기다리섯지요하면셔김참의에부인이안져잇  
 는것을보더니「누구세요언제를나오섯세요그리되니는다안령하심닛가이몸은공  
 연이이리골물무가올시다」티강이야기느느드렸지마는엇지하다그리되엿셔「그게모  
 다신수소관이지요제가이러케고성을하랴닛가」고성이야되겟이무엇잇나「엇지편  
 안할수야잇습잇가과거로살닐수가업스닛가불가불남편인지무엇인지어더야하겟  
 고남편을엇드라면저는맛겨들수가업는것이만약랑즈피류(蕩子悖類)를만는거느  
 하면제평생고성은츠치하고몸마져발록군이가될터이니명식은동성이라비안에혹  
 못하야떠여발일수도업고쥬야로눈에발피는것을엇지봄닛가그런고로마지못하야  
 아른체를하노라니랑저(郎材)는「마음에맞는사름이업고날마다듯기실은것은신  
 세타령이올시다그러부인은뜻이잇는고로호번썩보라고「콩에서콩고르기지어디  
 세상에별사름이잇는나살이나지곳하고의식이나벗주리지아니하얏스면그만이지  
 「글세올시다본디먹은마음이지금하시는말슴과곳치경향을놀론하야빈한(貧寒)  
 처나아니하고사름이나착실(看實)하얏스면그만이지오그러나이번오시기는제스



착색하랴 오셨습니 다 그러 「대리제 스를 위하랴 왔지 마는 또 겸하야 볼일이 있셔 올는  
왔네 하 면셔 그렇게 령담 화를 하다가 침 모는 제 방으로 도라간 후 속으로 생각하되 「아  
마 일길 순성(吉日順成)으로 다행이 있거 처지 아니 하 고 쉽게 되라 다행 가 국과 청이 맞노라  
고 이런 일이 있노 보다 다행 가 저를 어 려서 한 두 번 보았지만 이디 음조라 고 보 면 미우 쓸 만  
하리라 고 칭찬한 말 쯔 지 지 금 생각도 느려 나 와 제 형 곳 달 맛스 면 사름이 야 더 홀나 위가  
업슬 터이니 스 근 취원(舍近取遠) 할 것 업시 아 사름이 미우 가 할 고 나 심중에 너 어 두  
고 장 초 소 기(召价) 코져 홀 셔 날이 머 물 지 아니 하 야 기 일을 제 번 후 가 마 나 침 모를 잇글  
고 뒤 방으로 와 셔 좌 정 혼 후 부인이 입을 여 러 「우리가 일 전에 도 담 화를 하 고 또 침 모의  
스 세 도 저 셔 이 드 렷 지 만 심상 조 혼 데 가 잇기로 다행 가 중 미를 들 고 저 하 니 엇 더 혼 가 「아  
올너 조 롱 하 시는 말 습 이 지 마 님 제 서 중 미라 니 당 혼 말 습 이 오 닳 가 「남의 일 료 대 스 에  
실 업 시 홀 나 가 잇나 내 스 세 도 좀 드 러 보 소 조 네 아 드 시 다행 이 발 셔 늘 글 고 비 에 드 렷 고  
당 초 에 소 년 시로 브 러 수 터 라 고 는 한 번 도 하 야 본 적이 업 고 또 설혹 이 왕 브 러 닳 든 사 름  
이 라 도 지 금 와 셔 는 단 산 홀 셔 인 즉 데 일 큰 근 심 이 남의 집 에 드 러 갔 다 가 손 세 을 씌 일 지  
경 이 니 조 상 에 이 런 불 호 가 업 슬 켜 더 러 또 주 야 혼 습 으 로 지 다행 이 일 은 이 몸 의 만 경 스 세  
가 북 철 곳 이 업 게 되 니 한 습 이 씌 이 고 눈 물 이 지 일 날 이 업 습 으 로 다행 가 령 감 의 게 누 갓 간  
청 하 야 침 을 구 하 야 조 식 을 어 들 마 음 으 로 겸 지 겸 을 나 왔 스 니 우리 령 감 의 인 품 과 가 세  
를 응 당 짐 장 홀 듯 하 니 곳 하 야 익 은 음 식 을 뒤 문 밖 별 것 업 시 나 를 주 는 것이 엇 더 혼 가 침

모가 닳 기를 다 하 더 니 금 다 희 다 말 업 시 고 기를 속 이 고 더 답 이 업 스 니 부인이 또 처 처 권  
하 기를 「모 르 는 곳 아 니 요 파 츠 에 님 용(內容)을 다 아 나 터 이 며 일 이 비 먹 고 이 닳 기 니  
주 셔 홀 것 이 업 네 「만 일 로 마 님 제 셔 알 으 시 고 보 면 일 도 되 지 못 하 고 쑥 지 람 만 나 릴 일  
이 아 니 오 닳 가 이 처 럼 제 삼 말 습 아 니 하 셔 도 제 인 들 조 혼 줄 이 야 모 를 리 가 잇 습 닳 가 마  
는 한 것 럼 러 가 뒤 일 이 것 출 가 하 야 이 처 럼 유 예(猶豫) 하 는 것이 올 시 다 「그는 조 금 도  
스 럽 치 말 고 허 락 이 나 하 소 최 제 장 군(責在將軍)으로 상 별 간 에 다행 가 당 홀 일 이 요 침 모  
의 게 는 호 말 도 관 게 가 업 스 즉 미적(美) 홀 것 이 업 고 뒤 일 은 다행 가 담 당 홀 터 이 니 그리 알  
고 소 키 나 하 야 주 소 침 모 는 종 시 완 결(完決) 처 아 나 하 고 부인 은 호 언 으 로 닳 닳 고 졸 을  
적 에 삼 월 이 가 문 을 펴 열 며 「마 님 건 너 읊 시 오 「웨 오 라 고 하 니 「로 마 님 제 셔 장 국 상  
을 하 야 노 으 시 고 엇 주 어 오 라 고 하 십 니 다 「가 만 이 잇 거 라 무 습 이 야 기 좀 하 고 「삼 월 이  
가 문 을 닳 고 말 뒤 축 이 막 도 라 셔 는 터 연 듯 드 르 니 「어 셔 허 락 을 하 여 암 만 성 가 하 야 도  
못 하 겠 습 니 다 삼 월 이 가 성 각 하 되 마 님 과 침 모 스 이 에 처 렷 듯 밀 철(密接) 호 관 게 가 업  
슬 터 인 터 허 락 하 고 못 하 는 것이 무 습 일 인 고 하 고 문 에 다 귀 를 터 이 고 한 침 드 르 니 전 말  
(顛末)은 저 셔 이 모 르 되 님 용 인 즉 침 모 의 아 우 를 김 참 의 와 작 비(作配) 하 자 는 의 료 이  
라 감 안 「도 라 와 셔 로 부 임 의 귀 에 다 입을 터 이 고 「속 살 「하 닳 가 로 부인 이 눈 이  
동 그리 지 며 드 렷 든 담 비 스 터 를 툴 듯 처 면 셔 「홍 집 안 에 조 혼 일 성 긴 다 정 말 이 나 솔 기  
가 천 년 을 툴 더 니 썩 초 오 드 라 고 그 년 이 노 구 장 이 를 달 포 두 고 하 더 니 솜 씨 가 아 조 닳 나



기게 되었구나 벌떡이러서 는디 치마 자락이 찢여 지는 줄도 모르고 와 당통 건너 가서  
문이 켜려 가라 하고 왈 락여려져 치더니 고양이가 쥐노리듯 눈을 똑바로 쓰고 두사름을  
한 번에 집어 싱힐듯이 혼침을 노리고 보더니 「홍조흔 공론들론다 왜 무슴역적 모의를  
하느냐 뒤방구석에 와 서턱들을 고이고 안져서 숙더거리게 하면서 치디 답도 할지 업시  
물퍼붓듯 너희들이 암만 발명을 하야 도늬가 다 알았다네 가늬가 숨을 터우라고 요런지  
미스려운 일을 꾸미고 안졌느냐 고금련하에 시얏아 드려고 발광치는 년잇더냐 선왕지  
(善往齋) 하고 디 벌입는 단 말뜻지도 못하얏느냐 응침고 약살스럼다 설혹 남편이 이런  
일을 하라 히도 그놈의 계집이 되야 서절디 덕반디 (絶對的 反對) 를 할터인디 뒤집어  
홍으로 네 거정을 네 손으로 붓들녀서 다느냐 아이고 너가 저것을 터만 길년나 저것이  
간경에 바람이 드렸나 벌일도 만라 속담에 이르기를 불공에 는 마음 업고 지스 밭에 만  
정신이 잇다 더나 제스 제늬라고 온답시고 요런 흥계를 꾸미러왔고 나이의 너침모오날  
로는 가거라 아 우년인지 동성년인지 어느 곳에 못노와서 썩늬스위의게 갓다 안기라고  
싸고 썩스향(射香) 감초듯 엮힌 것 두엇더냐 갓해서 좀나드라고 너갓흔년 두번도 못보  
앗다 하 면서 한 촌쪽 박을 하고 도성결이 못져서 주먹으로 가슴을 황々 치며 휘... 응  
침모는 엮지 무섭든지 한구석에 가 썩세여 안젓고 부인은 턱연 혼디도로 모부인 세온순  
(溫順) 혼말숨을 엮줍는디 「어마 남식으로 함시 요이 유가 잇는일이 읍고 또저 침모의게  
는 조금도 잘 못이 업습니다 「듯기 실타이 유가 무슨 급살마질이 유냐 침모가 겨우 놀난

숨을 돌녀서 「제가 먼저 말쑥을 닮여 절문마님을 응동(聳動) 혼것이 아니오라 마님께  
서먼저 집안스세를 외오면 서술의 자제장스격으로 그년의 일을 아시는 고로 부덕<  
허락을 저촉하옵기로 종시디 답을 아나 하고 잇는 중이 읍지 제가 엮지먼저 추어벌리치  
가 잇습닛가 말이 썩스런이 조부인이 또이 어더여 「그런것이 아니오라 스과가 엮지 할수  
업는일이 잇습니다 조서이 엮주옵게 덧잡시 요하고 전후스정을 낫々치고 하나로 부인  
도성각각 미스제고 연하야 실로 부득이 혼일이 요또여 지로 만류흔들될수도 업스며 설  
혹 복임이를 다려가지 못하게 할지라도 제상에 혼흔것이 계집인 즉 복임이 아니고 는다  
른 계집은 여어보지도 아니 할리가 업는기 장지 무라 이러 함으로 불붓듯 하든 성결이 주  
려안져서 「모르겟다 주지를 돌든지 만쳐 줍을 돌든지 너하고 심흔디로 하려 무나 나 보  
기에 는 하도 썩하야 불이야 살이야 하는 말이 다하고 도라서는 가니 부인이 다시 침모를  
향하야 「어머님 제셔는 님 용을 조서이 아옵지 못하시고 잠간 분로 하심이니 향여 노여  
워듯지 말고 다 된 일을 어기지 마소 「지금 마님께 제셔 조서 혼말숨을 하시닛가 뵈옵기에  
식노를 좀하신듯하오나 아 조푸시기 전에는 작정하야 디 답을 못하겟습니다 「아즉가  
만히 잇스면 디 또 연속하야 알외후무스라 첩케 할터이니 조금도 넘러 말게그런더령담  
화로히를 보늬고 잇흔날 편명에 모부인 세문안을 하고 안지면서 「어제도 누々히 말습  
을 엮주었스오나 정세가 오작하오면이 부당 혼일을 남의게도 맡기지 아니하고 손수 일  
습을 이가 잇겟습닛가 진실로 위공비스(爲公非私) 읍고이 몸애 불효도 더러 갓 엮게 하



고저함이오니 불히 숨혀 주옵소서 「글세니가네 스정을 모르는 나 기실은 만부득이(萬不得已) 한데서나 온일이 지만 세상에 알기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후김춤의가 복임이의게 신정에 침혹(新情沈惑)함이 되거나 또 복임이 마음이 간스하야 너의 금슬(琴瑟)을 침히 떠나 하면 감안이 안젓다 말은 별악이요 나는 무슨 팔자로 이다 죽게된 몸 이시름겨워지니는 모양을 보잔말이나 「어마님 말씀이 절々이 울스오나 춤의로 말하리라 도경박한 쇼년이 아니요 각명환장부오니 그러할시 만무한 읍고 복임으로 말하드리도 이손저손 넘어가 간교로 속단장한게 집이 아니오니 설마 해아린바와 억이오릿가 「이이그말마라 설마가 사람을 죽인단다 넌은 류비(劉備)는 영웅이로되 부인의게 반하야 국스(國事)를 이젓스며 명황(明皇)은 단조로되 양태진(楊太眞)의게 후하야 정스를 그릇하얏스니 일로 불진디 석게상에 는 영웅렬스가 업느니라 니가 만류하는 본으로 치지 할나 도업거니와 정세인즉과 허남으를 수도 업슨즉이 왕형하라 거든 겁히 연구하교 극진조심하야 라 남은엇지 알든지 나는 너를 위함이니 만일네 근심이 옮겨와서니 걱정이 되면 두가슴이다 타겟구나 「임의 질정함이오니 중도지폐할수 업고 아니형치는 못하겟기로 초라리속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나을듯하와 일전에 드렸든 말인고로 적합한 줄노 생각하옵고 복임이를 다려가라 한일이온시다 「글세 춤이 스세는그런치 아니한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과 비할비 아니로되 복임으로 말하드리도 들나는 소문이던지 그 위인이던지 아즉 보아서는과 이상 업지 아니한 모양이로되 알기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맛치 초목(草木)과 꽃하야 처음날 석에는 연하고 곱다가 저라갈수록 절기고 악하야지면 그아니씩 한일이니 지금식과라 깨절문것에 마음을 맞을수가 어렵고나 이상에 한말이니 요량에 잇는되 리치가 그러하단 말이오 권할일은 아니나 네 소견것하려무나 「대체엇지하얏든지 관형찰색(觀形察色)을 하면디 키드러나는 곳이 잇슬터이오나 아모릿게는 불너다 늦코 간선(看善)을 하겟습니 다 하교 침모의게로와서 전후수작한것과 모부인의 묵허(默許)하심을 낫々치 말하교 침모를 지촉한다 「어서집으로가서다려오기를 바라네」 마님 말씀만 밋다가 또 어느하늘에서 벼락이 나아나니 리겟습닛가 「벼락이 나려도 내가 마칠터이니 그런 걱정은 말고 어서좀가게 침모가 조아라고 입을 베풀거」 하며 대문을 나서더니 치마자락이 거름바람에 펄펄날나도록 한 다름에 집을와서 방문을 펼쳐 열며 「아가그동안 무엇하교잇섯니 복임이가 방곳우스며 「하기는 무엇을히오심심하닛가 낮잠이나 자지오」 아이고그만하면이 쓴공이나셔노라고 이제야 네일이 되엿다 「이다형님의 주선이옵지요 만엇다케되얏습닛가 「되면이만저만하게되여 감아나잇거라 차차이야기하지하더나 담비한터를 담어달는하야 입에물고안져서 김참의에부인이 사람을 구하러오는은일과 그동안로부인과수작하든일편설화를일히말하며 「이제야네서름을잇게되엿다네서름이곳내거정인디오늘밤부러는잠을편이자겟다복임이가말을다듯더니 「조키는쫓치오만」 하교고기를꼭숙이더니무엇을싱각하는모양이라침모가이거동을보고 「웨네



마음에 무슨 부족한 생각이 있느냐 말하여라 복임이가 흔침을 하고 있더니 「이 조흔  
경성 언디를 니바리고 웨시 골구석으로 정을 세우세요」 「이 이야 그 말마라 범연하면 너가  
허락할 것겠느냐」 「암만 할야도 시골이 서울만 못하단 데요」 「뉘라서 그런 소리를 할  
더나 이 뜨건 속에서 머리 아를 쓰고 조석으로 분주한 것보다 산명수려하고 청한 무스  
(淸閑無事)한 곳이 인심스나운데만 못하듯 심부냐 또 김철의 부부에 인품된 것은 너  
도 짐작할 것이 오네가 그 집사람만 되고 보면 옷을 벗길 터이나 밥을 굶길 터이나 철도가  
잇스나 순식간(瞬息間)이 면서 서울을 다녀갈 것이 오남복녀비(男僕女婢)는 다 네 수족  
이 될 것이요 비단 옷과 옷밥이 이곳만 못하잖아냐 이를 쓰고 싸고 고골느 셔럽스금  
을 어더다 주넷가 무엇이었더냐 왜 밤은 밥상을 써치고 오는 복을 밀치느냐 사람도 이  
상한 다형에 설 명을 들은 장복임이는 다시 그림 눈섭을 펴며 연지뺨을 도르켜 「그야 시  
골도 시골느름이 오 사람도 사람느름이지요 보고 드른 것이 부족 할야 실정 업시 나가는  
말이 을시다 엇지 할야 든 지제의 일평성신세를 형님의 의뢰(依賴)할야스 오니 할라  
는 디로 시형할 켜줍니다」 「형이 설마 그릇된 할라 손톱만 치도 겨정 말고 나고 한가지로  
건너가자 복임이가 단장을 서로 하고 셔 옷을 벗구어 입은 후에 형을 따라로 부인 집으로  
오더라 이 세에로 부인은 부인으로 더 부러 그리든 회포를 다 시 풀쳐야 기 도 할며 복임  
이 일도 일으고 경계를 하 허수이 아지 말고 겁히 생각 할여라 할면서 당부를 하고 있더니  
뉘에서 기침 소리가 각각느더니 거무하(居無何)에 방문미다지를 바스지 열더니 침모

가 한미인을 잇글고 드러 오니 이는 곳복임이라 부인이 바라보니 여화여월한 절미가인

(絶代佳人)은 아나나 볼산 그림자 속에 나뉘는 설이 푸르렀고 아츰 언덕이 슬가 온디에

복스뺨이 붉었스니 가히 연장남아(軟腸男兒)의 심지를 어즈럽게 할 만 할미녀라 침

모의 지도로 부인 양위의 게인 스를 고하고 한 편에 안지니 부인이 입을 열어 「내가 너를

어렸을 때에 한두 번은 보았거니와 발서저러게 장성 할야고 나 지금 몇 살이냐」 「스물두

살이야요」 「자 금 너를 볼너온 뜻은 필연 알고 왓겠지 만 잠시 보드리도 미우니 눈에 합당

하 다 네형의 게다 저서 이 알엇게지 복임이가 수련(愁態)를 먹음고 아미를 숙이며 다만

되답이 「예……로부인이 또 말쑤리를 달어 「이 이야 가나의 스위령감이 이번에서 사름하

느를 구하는 디 흔흔 계집애의 업서 너를 말할 것느냐 서로 속히 도알거니와 첫지 사

름이가 합하고 너를 다려가 고저 함인 즉 남편 섬기는 데 법과 처산(治産)하는 법서 지

아 못조록 성심(誠心)으로 할야 가족(家族)이 화합하고 산업이 늘어가 게 되면 네 일신

에 칭찬도 라오는 것은 고스하고 족히 너저게 모범(模範)이 될 것이니 류방벽세에 엇

광이 엇더하냐 본시 영리 한 사람이 미더 일너 줄 말은 없다 「엇지 감히 일호인들 범연 할

길 이 잇겟슴잇가 침모가 첫해 잇다가 「제 동성이 라고 하는 말슴이 아니오라 사름인 즉

하바림 죽지는 아니 할음고 또 집에서 두누히 일넷습니다 복임이는 붓그러하느디도

로고 기를 족속이 고치 마뉘만 만져 / 하는 디 부인이 손을 잡고 「마음 닷코 편히 안져

라 오날부터는 너 집사름이 되엿는 디 할 상이 러케 붓그러하느냐 집에 도라 갈 것 업시



이곳에 몇칠 머무다가 나하고 한가지로 너려가자 부인은 일변으로 삼월이 될 불너서 국수를 사오느라 파즈를 사오느라 하야 부인과 한가지로 되접을 하고 이 밤을 지내니라 잊흔들 부인이 일즉이 이러나 연상을 너려 못코 편지(便紙)를 쓰느라 「상가서 못잡느니 요스 이 일과 고로 읊지 못흔들 데도」 려와 강왕을 읊시온 지양 모 불이 (仰慕不已) 오며 권술(眷率)도 다 안과 읊을는지 두루림 마 읊지 안 삼느 이 다 첩은 가 군(家君)의 허심을 밋와 이곳에 못 천후어 마 남 되시 읊고 침식이 한 말 갓스 오니 깃 부오며 보든 바 일은 가 만흔들 가 온 데에 도 읊이 있던 지 몇 날이 못 되여 순성이 되얏 습기 수 조로 아시게 하오니 량 찰 읊을 신후이 달 삼심 일아 참에 교조 두 처를 정거 장으로 너려 보너 주 읊소 서 충요 불비 상 장 삼월이 십 칠 일 첩 ○○○ 지 비 쓰기를 밋치 미 피 봉을 쓰고 이 단이를 불너서 「이 편지 좀 읊는 우편함(郵便函)에 석 집어 너코 오너라 이 단이가 되 답을 하코 나 가 더니 함 속에 너코 도라 왔더라 이 석에 김츠의는 부인을 서 읊로 보낸 후에 제 간살 님 홀준비를 다 하야 못코 호승 지로 더 부러 물가 온 데에 고기 낙고 솟아 리 술 먹으며 날 마 다 함가 히서 조 죽 칠 시 흥승 지로 더 부인의 명단(明斷)함을 청 찬하 기 마 지 아니 하더라 하로는 집에 잇서 무슴 분별을 하더니 순덕(順德)이가 통통 거러 드려 오면 서 령 감 마 님 서 읊서 우편으로 편지 가 왔 습니다 「응그 래 어 디 보 조 순덕이 가 편지를 읊나니 김츠의 가 밋 아 손에 들 고 읊 일」 의 더니 입이 저 절로 버러 지며 박 흥 모를 불너 서 일은 다 「을 나 간 일이 잘 되고 편지가 이러케 왔스네 교조와 하인들을 너려 일즉이 지 휘 하야 정거

장으로 너려 보너 소 「일으시는 대로 분별을 갓 습니다 하고 잇흔 날의 즉이 평 덕 역으로 보낸 후 김츠의는 고 디를 하 고 잇더라 이 석에 부인은 편지를 못 천 후 떠 나 갈 형장을 츠려 는 디로 부인이 다시 복임의 손을 잡고 신신 당 부 홀 후에 필 목과 피 물(正木珮物)을 후이 주 고 떠 나 는 인 스를 밋은 후에 부인과 복임을 남 문역 서 지 호 송 하 였더라 부인이 복임과 이 단이를 다 리고 고 치에 몸을 더 저 평 덕 역을 바 라 고 읊시 고 츠 창 문을 열 고 전 후 원 근을 숨혀 보 나 이 석은 모 춘 천 기(暮春天氣)라 먼 산에 아 조 랑 이는 푸 른 입 석 귀에 어 리 여 서 아 롱／＼ 하 고 초 락(村落)저 른 읍 타 리 에 는 도 리 화 가 작 작 성 기(灼灼盛開)하 야 유 흥 을 도 도(陶陶)케 하 고 일 천 실 버 들 속 에 는 짜느니 석 켜 리 북 이 라 경 석 을 략 하 야 가 는 중 모 르 게 밋 셔 평 덕 역 너 리 미 교 부와 하 인 들 이 밋 춤 등 디 하 였 다 가 뒤 뒤 가 지 고 옥 수 동 집 으 로 드 러 온 다 김 츠 의 는 집 안 을 정 쇠 하 고 시 간 을 기 다 리 더니 문 전 이 떠 들 셔 하 면 서 순 덕 이 가 통 통 거 리 고 드 러 오 면 서 「령 감 마 님 마 님 흥 초 가 너 리 오 심 이 다 김 츠 의 가 허 등 거 리 며 「응그 래 어 디 언 미 필 에 두 교 조 는 밋 셔 마 루 밋 헤 와 노 이 니 순 덕 이 와 이 단 이 가 교 창(轎窓)을 켜 드 너 가 부 인 이 먼 져 나 와 장 씨(張氏)를 인 도 하 며 김 츠 의 를 향 하 야 「령 감 그 등 안 고 디 하 셴 지 요 「제 일 부 인 이 신 양 이 나 업느 하 고 잠 간 념 려 가 되 더니 편 지 를 보 고 서 야 마 읊 을 노 왔 소 「어 서 저 리 드 러 갑 시 다 하 고 세 사 름 이 한 가 지 로 방 으 로 드 러 와 서 좌 정 하 미 밋 춤 먹 을 것 을 예 비 하 야 둔 고 로 순 덕 이 가 상 을 읊 나니 부 인 이 자 커니 권 커 나 는 디 「어 서 스 양 치 말 고 만 하 먹 어 라 너 가 비 가 곱 홀 켜 에 오 작 히 시 장 하 라 김



참의는상갓헤안져저를잡고원하면서 「잔북그림은나를다쥬고평심셔괴를하야라  
장씨는나릿싸운우슴을먹음고 「만히먹엇셔요깃분우슴속에셔상을들이고김춘의  
가장씨를잇그려뒤집으로와셔안돈(安頓)후후에셔로스괴는정이흠흠히옥슈를  
부여잡고관관혼정화(欸欸情話)로말을못는디 「시골음식이라셔을입에응당맛  
지못하엿스리라 「어디본리시골택이라고숨씨가업셔요 「그런디년령은몇치되었  
느냐 「스물두살이야요 「엇지하다가이러혼청춘에상부를하얏느냐 「명지장단이  
야미리혜아릴슈잇슴닛가마는팔자를령감제로곳쳐라고발셔작정이되얏는지이제  
부러는춤아듯기실은청상과부(靑孀寡婦)라는조롱을면케되니도모지다덕분이지  
오그러는웨벼슬은구치아니시고이곳에서한가이누어게셔요 「허일부러청운에뜻  
을두고쥬마입흥진(走馬入紅塵)하느사름도잇스나나의뜻은그러치아니하야괴로  
움을잇즈하교연라(烟蘿)와인연을미지며청강벽구(淸江白鷗)로벗을슴잇스니물  
외에고상(物外翹翹)흠을어느누가시비하랴 「이몸도번화디가뜻에맞지아니하야  
령감을쫓츠와지오하면셔다정호츠휘파(秋波)를연하야보이니김춘의는썰닥적어싱  
힐듯이바삭／＼다거안지며즈미스럼게담화를홀썰에썰에서부인의기침소리가나  
더니영창을바스시열고드러오며우슴을써여하느말이 「사랑겨워안진흠에밤송이  
노릇하랴와소장씨가러마지며 「괴츠에센쳐셔셔곤하셔지오 「나는곤치가아니하  
되멀／＼서온사름인교로일즉이즈기를원하랴와다하면서위로의이야기를흔춤다

가정이겨워조롱이나오느디 「룩슈청강에아조신어젖던원앙셔의흔이허공에둥실  
떠단이다가다시비익조(比翼鳥)의북쳐우리집동산가온디에웃죽느러진련리지  
(連理枝)우에깃들일줄을누아릿스라송성월광(蠅聲月光)을놀느지말고동방화축  
에서스랑을네져어라하교요조흔디도로방문을밀고나가느디홀은느시니소리는지  
게문으로드러오고불어오는봄바람은뜻향괴를모라다가비인들이슬샘들에부디치  
니이정히춘풍춘야(春風春夜)조흔씨라밤은삼경을지축하교인적은교요흔디김춘  
의가흥을써여이런말저런말을츠셔가업시술취하사름뛰여가듯모느디 「이이야니  
게오기전에느경성어느곳에살엇느냐 「스동(寺洞)살엇셔요 「네의큰마누라가유덕  
한사름이다 「거동이던지말슴을하야보던지춤그러함디다 「그러나좀비왔느냐 「언  
문은좀풀어보느척하셔요 「괴츠를몇번이나타보았니 「여행(旅行)하야본적은업고  
지금령감택이첫번이야요 「몇형데나 「우으로형님은분별이야요 「이교을은갑오년  
(甲午年)을지낸후에철도부설이되여셔미우발전(發展)하느모양이다그런져령이  
야기를하다가이밤을지낸후에김춘의는집안분별을하랴고밧그로나가고장씨는일  
어나담비흔디를피여물고영창을반만열고담밧글니여다보니일전에보든갑제천명  
(甲第千甕)은하느도업고등은／＼혼초옥들이보기에썰썰하며일망무제로죽러진  
덜에느라가는것은벽구썰이라고괴를꼭숙이고속으로싱각한다 「속담에이르기를  
사름의적기와말적기는셔올로올려와야쓴다느디나는엇지하야똥똥듯독같이에홀



니듯우연이이시골구석을왔노공연이형년에얼녕( ) 하는말을고지듯고이런심심  
 한곳을와듯코보니비견되마구에된인말( ) 하야 주유로돌슈도업고다라날슈도업슨  
 죽이를장초엇지하면조홀고밧파라논스기논이밥먹자홀일인디이왕이곳에서깃드  
 라고보면과나월신평고살어야홀데엇지하면원리줄을외목으로쥐일가하며무엇을  
 연구를하고잇더라되서세상에창기(娼妓)라던지기타미춘(賣春) 하는게집들이네  
 가지장기가잇스니첫지는웃모요들지는웃민두리요셋지는말솜씨요넷지는석정이  
 나이네가지중에서천금이앗갑지아니하고필경피가망신하는탕조(蕩子)가성기거  
 든하물며이장복임은네가지를다점하얏다다그러한즉김츠의의집이이장씨로인하  
 야만실화괴로향당에모범(鄉黨模範)이되가비인러전혀러지는날에사람으로하야  
 금눈물 금치못하게될가숨호다김문에홍망이장복임의고기두르는데잇스니지금  
 생각하고잇는장씨는김문을홍코저하는가망코저하는가장초하회에잇스려니와세  
 상에촉첩(蓄妾) 하는사람은가히가계(鑑戒)를숨을지로다쳐량이담비씩를써쳐물  
 고담밧글바라보다가아미를숙이고성각하고또성각하는자복임은한석경이나연구  
 할다가「올타( ) 이리하고이리하야지팔조가스오나와남의소설(小室)이될바  
 에야썩리를샅해제고한구석에움치고잇슬필요가업고나속으로계교를청하고비단  
 옷슬버슨후쓰레질흠침질과진일말은일을못할것이업시김츠의에 눈에썩드도록하  
 니김츠의가썩반하게되고부인은더욱사랑하야이단을가타고일을보살피게

하나라네로보러일으기를열길물속은알아도한길사람의속은물은다고그려얹전  
 하게만보이든장씨는점점간교를부려부인을리간(移間) 하는디열번씩어아니너머  
 지는나무가업다고그각명(刻明)타하는김츠의도슬며고취하야오는것갓점점장  
 씨의게홀니여장씨의말이라면왓치메주가된디도를케듯고부인의말이라면하늘을  
 가라쳐하늘이라하야도의심을니게되얏더라세월이여류하야스오사이지는디장씨  
 의간스홀후림씩로소비복이다장씨의심복이되고집안일은점점슈슈입들러가듯  
 하는지라부인이크게념려하야성각하되「그모양이단정하고얹전하게보이고언어  
 와성정이순량(淳良) 하는복임이가이러듯교스난측하게되줄을엇지뜻하앗스리오  
 어마님께서루루이하시든말삼이밋쳐식지도아니하야서니가이가슴철일을당하고  
 나이를장초엇지하면조란말인고이런이유로저의형의게편지나하자하니오금박힐  
 일이나트쳐뜻하고속에넛코삭이자하니조고마흔가슴속에큰덩이불시를못음( ) 하  
 야시시로눅이느니간장이오간장눅은불은응당소스눈물이될터이니장장세월에슬  
 음겨워엇지스나아모리성각하야도불은붓기전에써야한다고보고듯는디로그른모  
 이드러나면세웃치고가르쳐야하겠다하고장씨를보는디로「여보아라니가너를다  
 러은본의는첫지아들을어더이집안손세를잇기를위함이오들지는가스를위임( ) (委  
 任) 하야나의괴로움을덜고저함인디근일너의처사(處事)를본죽은당치못하겠점  
 (缺占) 이만으니너를위함은나의성직은고스하고가당의문란을엇지하라고이처럼



형수를 향하니 이르러 처첩 연하기를 한두 번이 아니오 이것을 당한 장씨는 점점 말되 답을  
 향난디 「웨그리셔요누가 엇제관디 밤낮 말숨이야 요이러 캐들들복그라고 마음에 맞  
 는다々々々고이구석에다너려다노와셔요이처럼디 답을향며 부인의 말한마디면  
 장씨는 두세 번씩 김춘의게 초소를 향하니 아편인(雅片引) 박이듯 정신은 복임이의게 다  
 세앗긴 김춘의는 점점 부인을 틀니게 알고 성이 각금(各金)나난디 「그암전든 사람이 성  
 정이 왜저러게 변향앗노으졌고 올흔 일향는 체향야어린너를 다려다놋코 점점 두귀  
 밧달로 들어셔는 고나 「지란(芝蘭)은런하의 명초(名草)로되 쇠향고 말으게되면 향  
 취가 업다난디 전일애는 엇지향앗든 지츠츠 늙을고 비에 일으인사 곱든마음이 악향야  
 지는게 지오 「그만두어라 천박사름이 짓거려도나 하나가 데일이 다향고 판관스령이  
 다 되엿는디 이를 근심향는 부인은 종용이 김춘의를 맞는서 「여보령감가 정의 풍(風  
 紀)가 날노그릇되는영향이잇는디 각명훈령감으로 엇지 숨히지를아니향오니 손으  
 로다려오고니 입으로 초출아엇지말을향오릿가만은 복임이에 향는일이 한두가지가그  
 림이아닌즉이런씩 할일이 어디잇겟소 쳐음볼씨에는디 우적합한사름으로알앗더니  
 비안에 똥이니 음식업다고누가 밋은나 무에곰이 필줄을알엇소이르쳐경고(警告)가  
 한두번이아니로되 설코흔말을소리코치아는저김참의는듯가가 실여서 번번이역정  
 을닌는디 「공연이 회설(會說)수설(水說)만거든그저 밋다향오점자는데면에 식기의마음을웨든  
 단말이 오습다스세가이러향니 장씨의교오(驕傲)는콩기름되듯늘마다자라가고

부인의 슈심은 조희애물번지듯온일신이 설음중에 싸엿스니 어니장스(壯士)가잇서  
 불에쳐름곳은 장씨의 정을떼이고다시가도를바로잡을고이러할동안에늘이가고달  
 이가더나복임의 비가온디에는즈랑거리가비져들어 점점불너올스록니로다  
 향는장씨는바람찬지연(紙薦)쳐려뒹둥거려곤디 짓을향는디 반갑기측량업는김참  
 의는은소반에다못밧들어한이되고교칠(膠漆)코흔곳은정은뚝으로게여도름이아  
 니나게되엿더라 부인의신체는갈스록기구(崎嶇)향게되어어디다가마음붓칠곳이  
 업스니 흐르니니 눈물이오나오나 한숨이라아무리정되할말로간향고간향나오장  
 이 밧퀴인 김춘의는듯기는고스향고도로혀구박이 무쌍향고간악무비향장씨는날로  
 음회(陰害)기만연구향니 불상향다 부인의 신세여비록그러향나 후덕향 부인은장씨  
 의티괴잇슴을기거워향야복임을볼적이면 「너에잉티(孕胎)흙을보니 집안에이런  
 경스가업고더욱이너를천거향나의싱광이야일을것이잇는나아모조록바라는것은  
 아달이다이와코치정잇고간절할말을들은장씨는 감격향기는초치향고다만디답이  
 「어디세상일이썩썩과코출슈가잇는요이처럼 뒤통그러지게향고 부인의발길이막  
 도라셔면 「음심술망난이가장정다운데은근이사름을썩집어떼이면셔이처럼기탄  
 업시 부인의귀에들어가도록향니아무리진중(珍重)향 부인인들엇지번번춤으리오  
 하로는무슴일을그릇향거늘간절이일으고달니여말향앗더니 불공설화로 부인을원  
 망향고심지어악을쓰고독살을부리니 이것을당향 부인은괴가막혀서방으로드러와



장단단우로 감아니 생각하니 「이런서른스정을 가장(家長)의 게고야도 쓸디가 업고 복임이를 달니 고가 르치자하니 도로혀 불공설화로 턱살을 치맛치니 이리 흘슈도 업고 저리 흘슈도 업슨즉이 지원극통한 말을 누구를 향하야 하소연을 할고 상담에야는 독기에 발등을 찍히고 손주심은 나무가지에 눈썰닌다더니 게디하야 맛쳤고 나하면서 을화(鬱火)가 처박쳐 답답한 가슴을 쥘며 이압흐도록치고 이미흐담비씨는 목이 각금 / 불어지는디 표독무덤한 장씨는 도로혀 군조호른 부인을 원슈곳치미워하야 방안으로와 락들어와서 영창을 활작열고 창턱에다 몸을 기덕이며 석기 손가락을 코궁에다 세이고 오록월복중에 기구리혈덕이 듯숨결이 되락 누구 락눈을 켜다 감았다 지름업기도 하고 독살도 닐이면서 암만하야 도이 집안에서는 못살겠서 이리 흘썩에 이단이와 침모(針母) 등속은 랍침(納諫)을 할노라고 「곳하야 웨탄하심닛가 할다 실으면 말갯지오」 성이가 시닛가 그릿치너는 오장도 조타사람이 괴를 퍼야 살지하면서 혼침법셔을 흘적에 감춤의 가썩드라와 이거동을 보고 「왜또 무숨일이 있니 복임이가 감춤의의 말뜻은 것을 보더니 아릿다운디 도로 흘깃흔 번보고 목을 심리 만쿨돌니면서 「누구로하야 난일인줄 모르시고 못소식삼스려운 말숨은 곳잘히」 「니가 너다려일넋지곳하야 탄을 것무엇잇나」 「조고는 물퍼붓듯별소리를 다하면서 도나논바람에 돌붓쳐 불슈가 업서 감춤의 가안위를 식이노라고 장씨의 손도 만져보며 머리도 쓰다듬고 순덕이를 불려서 한바탕야단을 하는디 「왜이러케 집안에 말성을 만드신다더나 이제부터는 자

조조 오시지 마시라 하여라 참정성이 가시고 나순덕이가 쥐숯듯도라와서 이 말을 부인씩고 흐터 부인이 드르니 하여이가 업서 괴가 막히고 스지를 벌벌 떨며 한숨을 치쉬고는 리쉬며 생각하니 「집안일은 천연두(天然痘) 그릇되듯 말이 못되여가는데 남편은 조금도 서우칠줄을 모르고 짐싱곳치독흔 년은 헐썩을 근더릴슈도 업스니 쇠털곳치만은 날에 무숨괴변(恠變)이 날는지 바늘방석에 안진것갯하야 송구하야 견딜슈가 업고 나도 모지오 날부터는 알은례를 말고 동정이나 보는 것이 데일상책(第一上策)이다 하고 똥똥치듯긴마음 썩썩마다 병이 되어 여얼골은 누른 빗출씨우고 몸은 점점 슈척(瘦瘠)하야가니 가히 앓갑도 다 세상에서 짝이 적은 숙녀(淑女)로 었지하야 이러흔 곤란을 당하노고 세월이여류하야 이듬히이월이 되니 적적히도라호든 볼은 괴약과 곳치다시도라오나 담안에 숨어잇든 복스가지의 불곳 / 흘썩봉오리는 거의터지고 조호덜가온디 말넋든 잔디는 속임이 썩죽 / 소스나오니 초목군성(草木群生)이다 줄거운 뜻이잇는 봄절과 러아어언간 장복임이는 옥슈동금춤의 집에 온지가 발서한 달썩부족흔 일년이 되미비속에 든 열미는 시괴(時期)를 초저 세상밖에서 오니 일가로 소가 아니기버는 사름이 업스되다 만기분중에 도조곰 썩썩흔 것은 남아가 아니오녀아(女兒)라그러나 몇십년을 아히 소리가 싹어졌든 집안으로 비로소 「응아 / 하노우름소리를 드르니 참의는 기분마음을 악이지 못하야 혀를 조고어르며 부인도 반가와서 한다름에 건너와 장씨의 게치하를 한다 「아이고 순산을 했었다는고나 아히를 드려다보며 「눈치코



치가 부풍모습(父風母習)이니 유덕하고도 영니하고 깃다하고 또 조흔 말로 복임이를 위로하고 건너갓더라 김춘의 의논아히 일흥을 행할 달아 병임(病妊)이라 하고 조아하기를 마지아니하고 며장씨를 위로한다 (조식이야 남녀가 잇스라 행혀도 서운이아지마려라 아달은 다 음희산에 응당 낫겠지 복임이는 싹남 못흔 것을 한이 되여서 「첫망을 이렇케 근년이 무슬복력에 다 음희산을 바라요 「그 말마라 첫히 산에 싹은 금을 주고 산든 다 할 면서 흥송지짐으로 건너와서 서로 술을 잡고 담화할 식흥씨가 김씨의 손을 잡고 「실례에 말슴이나 우리 부부가 의결(議決)하기를 로형이 이번에 아달을 어드면 근식이와한 가지로 공부먹이 고 만일 싹이 개되면 비필(配匹)을 숨고져 갖스오니 즐겨 허락을 할을 논지요 「진실로 원하는 비요 감히 청치는 못할 일은 다 만첩의 소성이라이와 조흔 관계를 생각지아니하고 서고 정중할 말슴을 하오니 엇지 좃지아니하고 오릿가이 조치두 사름이 결혼을 되약(牢約)하후에 김춘의 가정으로 도라와서 부인과 장씨 다려이 야기를 하고 병임이가 어서 「자라나서 속히 경스보기를 바라더라 비감우유(悲感憂愁)의 표위(包圍)중에 드러날 마다 총 공격(總攻擊)을 당하는 부인은 보고듯는 것이 모도가 숨만타는 일이라 갈 슈록 심혼 중에 장초신세는 더기 구하야 지고 장씨의 흉악한 마음은 점점 더 발동할과 미가 홀연이 슬펐는 나지 못게 라이곳 무슬 일인고 슬푸다 부인의 비한에 복이 될는지도 모려 부인의 개화가 될는지 모르는 밍아(萌芽)가 천만 싹밭게 숨겨서 김히 「감초아 잇도 다 몸은 늘로 무겁고 비는 날로 불너 오니 이것을 듯고 보

는 장씨는 잠씩 놀녀서 심중에 헤오디 「니가이 조치 사랑을 보는 것은 다 만사 싹흔 시로는 정색이아니라 김춘의 의망(希望)을 맞쳐서 드려오든 즉시로 잉타를 하엿고 또 장초압해희망(希望)이 만음이어늘 나니 어노은 것이 쓸데업는 싹 조식이 요져 것은 만일 아달이나하느낫코 보면 공든 합의 문어치고 정든 남기 억거져서 교철조치 곳은 정든 당구름사라지듯 안기 호터지듯 모든 일이다 슈포(水泡)로 도라갈 터인즉 이를 장초 엇지 할고 하며 주야로 방알척(防遏策)을 연구하는 디고 심경영이 필 극독극흥(極毒極凶)하슈 든 일터이니 난군 중에 든 것 조흔 부인의 운명(運命)이 장초 엇지 될고 할 살곳 처가는 세월은 발서 심삭이 초미 일일은 부인이 희산과 미가 잇더니 일기 옥동(玉童)을 나으니 지라 대한에 감우(大旱甘雨)조치바라고 바라든 아들을 낫코보니 그조치미워하고 구박을 하는 김춘의 도이 쇼식을 듯고 허둥거리고 건너오더니 울으며 너리며 분별도 하고 부인도 위로하며 아히도 일 으면서 「싱각지도아나 혼뜻 밧게네가 웬일이냐 하눌에서 떠러졌는 나싸에서 소산는 나아이고 괴특하야라 네 일흥을 병철(炳哲)이라고 지었다 하 면서 한참 흐들 갑스럽게 조아 할 즈음에 이든이가 와서 「령감마님마 마님씩서 엿쥬십니다 「응……응고서 이든이와 겨우 더 건너가더니 멧철만 콤식겨우 건너와서 맛치 무엇일은 것 찾는 사름처럼 창문 밧게서 고기만 기웃드리 밀고 침식의 편부(寢食便否)만 물어 보고 뒤도아나도라 보며 비암의 쫓기인 사름 조치 들어느니라 장씨의 독히는 싹일터가 업고 부인의 서름은 날로 더하야가더니 슬푸다 부인은 싹경병



(神經病) 에 걸이엿도다한시반씩를 근심아나홀쳐이 업서홍주에 가득한것은스려  
 (思慮) 요이목에보고들니는것은전혀다실음이라이러듯장구한일월에나이면면산  
 을벧을숨고밤이면족불과씩을지어절은단식긴호숨으로안졌다 누엇다 열화중에타  
 는가슴똥똥치한이되니엇지무량하기를바라리오스세가이러함으로형히(形骸)만  
 남엇는디다형이잠시마음을붓치는곳은오륙세된병철이라심스가죽지못할씩면병  
 철이를무릅우해안치고 「동서내것이야아모조로장수하고어질고착하여라한면서  
 인하야 눈물을썩썩떠러트리나이모양을보고잇는병철이는저도또한 눈물을지며  
 「어머니우지마오 어머니만설소나는한번도아버지의게귀염은못바다보고셔모의  
 게불기씩만각금」 마져요이와코치모조로설은말을홀제떨가온뒤에서자박々  
 々신소리가나거늘창문을열고내여다보면번번이병임이라나히는비록어리나이다  
 음김씨문호를보존(金氏門戶保存) 할사람이라엇지범상한아희와코호리오현연호  
 리도로드러와셔인스를고호후부인의설어함을보면곳무릅우에안지며 「어머니설  
 어하시지마옵시오아바지씩서마음을돌니실씩가잇겟지오호면서병철이에손을쥐  
 고한가지로젖을주무르며방울」 듯는눈물은인정이잇고논참아볼수업더라기특  
 하도다병임이여저빅악이구비(百惡俱備) 한장씨의속에서엇지이러듯현초(賢肖)  
 호병임이가탄성하야는고이논하늘이김문을불상이여기샤 특별히병임을보느시고  
 또부인을예비(預備) 하얏다가덕행과저예(德行才藝) 를기르게하심이로다그런고

로병임이는스스로마음이쟁기엿든지부인을천모보다더공경하며 부인은병임이를  
 천녀보다더스랑하야삼강오륜(三綱五倫) 이며조슈침선(刺繡針線)을일일히가라  
 치니런품이영나하야하느를드르면들을아는지라이름으로부인이극히스랑하며또  
 병철이와우이가되단하야놀기도한가지로호며공부(工夫) 도한가지로하더라이것  
 을조아하지안는장복임은병임을취여지르며 「요철당선이업는년아아쇼가셔그  
 년의살이되고니눈압해보이지말이라나무시될것은씩넙브러 안다고그년길잘든다  
 어미의말은터전소아리로알고하도독살을부리닛가효녀(孝女) 병임이는아모디답  
 도아니하고공손이잇다가모친에성이셔전후나죽호소리로 「심심하옵기로병철이  
 와글비우다와셔요 「에요방정마전년저리씩가거라계집년이안이씩게그아바지인  
 지씩하다쌀조식을저렷케가라쳐이와코흔분수업는말이호면서집안을죽적지짓슬  
 하며가도를문란케하는중우극등분호일이잇스니이논금슈만도못호호위라아지못  
 게라이무슴더러온일인고등중호춘심(攄中春心) 을이이지못하야드더여박홍모  
 로더부러은말호관계를미졌더라홍악하고음란한장복임은말할것도업거니와이악  
 박홍모는정족모발(頂足毛髮) 이모다김참의에은덕인디갑홀생각은일호도업고도  
 로혀이코흔죄를범하얏스니엇지런쥬신멸(天誅神滅) 을면호리오김참의는홍모를  
 김히밋어안박업시드나들게하니음남음녀논이것을괴화(奇貨) 로여겨장씨를엇더  
 케호면나의무릅우에서늘게호고하며 장씨는홍모의소년풍도를스랑하야엇더케호



면한 버지를 빌고 향야셔로 틈을 엿보다라 숭호다괴 산도슈(祈山禱水)는 망가의 근본  
 이어늘 지식이 업는 장씨는 이것을 상스로 숨아어다가 득금만 향야도 무당과 관슈요 할  
 일이 업고 심심한 면 불공을 단이논디 여광여취한 김참의는 감히 거역지 못하고 사스연  
 청호미간사한 장씨는 이를 조흔괴 회라향야하로는 김참의에 성일을 격향앗는디가 장  
 남편을 위하는 체하고「여보령감」의 성신이 이도라오는 나흔날이 아니오「그렇치  
 「일전에 못구리를 향나다가령감 신슈가 좀나보다나 이 뒷산 암자에 가서 신중불공(神  
 衆佛供)이나 좀하고 오겟소」조홀되로향여라이응락을 드른복임이논 양양득의향야  
 박흥모와 이단을 다리고비인산골시니것호로 두견성(杜鵑聲)을 드르며 허성암  
 (虛成庵)으로 올라가더라 붓그림이 업시 한창즈를 맞이은세남녀는 빗긴산셀로숨을  
 헐덕이고 산문(山門)을 드러가니 이 절은녀승슈인(女僧數人)만잇는 중용한덕호암  
 자라 막나뎡지를 니더니 장씨에오는 양을 보고 일데히 합장하며「소승문안이 올시다  
 장씨가 답례하고 불공은 뜻을 말하니 승들이 깃거향야 불공 절즈를 베풀고 장씨의게고  
 향니복임이가이단을 불너서「나는 이곳에 잠간잇슬터이니 네가 문져가셔거취를  
 향여라이단이는 논치싸른사람이라이말을듯더니 빙긋웃고 갖는디이러호스이에저  
 음남음녀는 금수(禽獸)만도 못흔츄스를 형향앗더라스괴가이러호즉 불으신하늘이  
 이두사람으로향야금영원이 맛게즐거웁게하실는지 퇴공(雷公)을 보니여위엄을배  
 푸실는지 장스압일을 보려니와가히 죽임죽호호모는 상중(桑中)에 언약을미진후로

부러 장씨와 천밀함이 날로 두타오며 흥계를 의론할썩에는 산신제에 매썩이 참예호듯  
 번번싸질적이 업고 전호독호게교는 모다 이흥모의 오장에서 울어는더라이썩에 김참  
 의는 장씨와 주야로 담락(耽樂)하다가 한가흔들이잇스면 흥승지로서 더부러시니에고  
 기락구고달아리술마시며 세스를 소견하더니 하로는 또 흥을 추져가셔 피초한흔(寒  
 暄)을 맛친 호승지가 맛찬편지를 엿다가 김참의를 주며「이편지 좀보시오 김참의  
 가 밧아들고 보다가」허허엇지향야이쳐름넷썩을져바렸소「그렇것이 아니라로형아  
 시듯기근리성함이 점어려워지미부득이다시 청운에 썩을들가엇지향면 조홀고향든  
 초에오날 홀연우편으로이편가왔는디썩헤싸여잇는 일호은나와 절근호천우라니가  
 이렇듯 성제가 곤란함을 향상근심하더니 편지 중에 말과긋치이번인지 퇴공에나를천  
 거향야 회양군슈(淮陽郡守)로임명이 되엿스나 곳올나오라향엿고 송현(松峴)가  
 집셔지변 통향야노와다향앗소아니올나갈슈가 업게되엿소그러나우리가이곳으로  
 을썩에는 한가지 손을잇글엇더니 지금 당향야이긋치분슈를게되니 실상은니마음  
 이형을져바림이아니오구복이형을져바림이라진실노한번웃고단식할것이오「스  
 세가이와긋흔이상에야역지로호슈잇소아모조록척임(責任)이나극진향시오  
 「그런디호스는 장스성년(成年)이되면향겟지만나는니일썩는는사람이라며는  
 리를아니보고갈슈업스오니 잠간 불너주시오 김참의가 건너가더나병임의 손을잇글  
 고오미흥승지가 다리고안으로드러가니 부인이 반겨병임의 손을잡으며「아이고너







성감모(流行性感冒)처럼 실음(失音) 알코누었는 자라 흉한(凶漢) 흉모가 별안간 개교  
를 칭각하고 장씨와 이돈이를 불러서 노는 놀이를 하라 모다 불쑥이 는 것 같치 세 남 녀가 뻔  
들너안더서 귀에 다 입을 터이고 수군(水軍) 속살(속살) 혼잇가 복임이 는 연하여 고기를 낚  
덕이면서 「그리」 춤조차 못하며 흉모는 장씨의 귀에 터였든 입을 떼이며 다 만났해 말  
만들니는데 「알아들라 똑 되거지 장씨가 빙긋 웃고 안으로 들어 가더니 조금 있다가 은  
면(銀錢) 두 몽치를 가더다가 이돈이를 주며 「이것 썩어나라 성스 곳 되면 또 뒤 밧침이  
있다고 하여 이돈이는 남의 천환에 든지(親患斷指) 하는 것 처럼 고기를 살라니 젓고  
엇개 춤을 추면서 돈을 바다가지고 현당리(玄唐里) 무당의 집으로 오더라 이 무당은 장  
씨의 단골(丹骨)인데 장씨가 일년에 주는 물건도 만코어디가 싹금만 하여도 이 무당  
만 차는 고로 장씨의 말이 라면 죽을 곳도 가던 터이더니 별안간 이돈이가 들어 오는 것을  
보고서 「아이 고이 돈아 씨인가 무슨 일로 왔서 그리령 감게서와 마마님도 안녕하시  
고 안녕치가 못하시다 오그러여 었지하서 왜 무슨 병환으로」 또 먹이를 싹겨 소년며 조아  
서 하더니 무당에 귀에 입을 터이고 무어라 무어라 혼잇가 듯고 있던 무당년에 입이 귀에  
까지 찌여며 「아이 고이 것이 아니라 도하러 가시면 아니 거히 할고 돈은 무엇 보  
서런 만외에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며 일변디 필을 닦으며 웃고 혼을 춤을 그리고 쓰더니 착  
착 들어 봉하여 이돈이를 주며 「이것을 갖다가 병철이 집어니 담안에 못고 잇게 되면 너  
래에 가서 되도록 할 터이니 그리 알고 갖다 드려 이돈이가 혼다름에 근너와서 장씨를 주

며 무당하던 말을 면하니 장씨가 듯고 희불스승하여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고별안간  
알는 모양을 하면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김춘의에 누운 것 해와서 아양스럽게 슬며  
시 드러누으며 「아이 고령감」 도죽 것서 이렇케 압호닛가 「왜너도 머리를 동엿는야 아  
마 더 혼가 보고나 「일년부터 몸이 었데 으스스하건만은 령감이 이와 같치 누으섯는  
데 또나 마더 쓸어지고 보면 집안일이 말 못되기로 여지로 춤고 잇섯더니 오늘은 저편  
수가 업스니 집안이 탈이 늦는 지이게 웬일이여 「허너마더 이러하여서 될 수가 잇는야  
「조조나지 요어서 령감이 는 평복이 되서 야지 요하면서 무슨 신을 하고 이 날을 지낸  
후에 김춘의에 깨어르티며 「령감 압만하여 도압한 것을 춤을 수가 업스니 죽기 리는 좀  
하여 봅시다 「아 모릿케는 하여나도 록만하느니 말을 들은 장씨는 유공불급하여 이돈  
이를 불러 잇가 이돈이는 맛춤 등 뒤를 하엿든 지 불은 소리 가 밋쳐 설이 기면에 「네여  
기 잇심이 다하고 방문을 바스시 열며 들어와서 장씨 누운 자리 밋테 다 손을 드리밀면서  
「마마님 앓가스이에 좀 었더하셔요 「아이 고 었던게 다 무엇인야 는 고스하코 령감께  
서 더러웠알으시느고 는 너더 현당리가 서만신(滿神) 더러움 물어보고 오느라 이왕다  
약조를 하여 둔일이 라는 이돈이가 가더니 혼동안만에 들어오더니 「돈여 왔습나 다 장  
씨의 말이 올에 낭위(兩位) 제서 신수 불길 혼중이 달에 남의 횡厄(橫厄)에 걸니여 뒤  
위티하시다 고하여요 그러고 이것을 풀려면 대에와서 굿을 하여야 무스타고하던걸



이요「아이고그런말이냐」여보령감이단이호는말을드르시오「그러면어셔불너  
다가무엇을하던져서나어지어터사람이견딜슈잇셔야지어말을들은장씨는이  
단을손짓하며「어셔가셔불너오느라만일더디면다른집으로가기쉽다조절위학  
(助桀爲虐)」호는이단이는무슴슈나난듯시귀에서회파람소리가나도록현당리외와  
서이소식을통하니무당은이날저녁으로약조를흔후이단이가다시도와장씨의게  
고하고일을절츠를예비하야두엇더라장복임이는간계가여의호게된것을환던히디  
(歡天喜地)하야어셔셔가일의기를과로이기가다리라어연간불근히는셔으로잡기  
고등방에숙는달은산고기로넘섯하며붉은빛을도하니이씨는처음여름이라만조천  
홍(萬紫千紅)은봄바람이쓰러가지고런다빛그로도라가고살찌고풀은풀과입흔초  
가들둘너잇는디이정히깃분사름은홍을돕고슈심잇는사름은시름을더할때러라달  
빛아거의설에과즐만하야셔문밖에서기가정정짓더니이단이가급히드러오며「마  
마님말선왔습니다반갑고반갑다기다리고기다리든장씨는이말을듯셔니천리에봉  
고인(千里逢故人)처럼누어셔허둥거리며「응만선왔셔어셔이곳으로드러오리라  
무당이방문을열고드러오더니장씨의것해가안지며「이단이편에말슴은다듯습고  
또이만신에말슴도응당드르섯겟습니다그러나이처럼단함을셔오작히괴로오시  
겟습닛가「그리기에하도갑갑하야셔이단을보너엿더니뜻밖에놀는운소리가들  
녀「모도다신슈불길하야그렸습니다그러나지금풀어바렸스면그만이지요」그러면

곳시작을하거고이단을불너셔제반절츠를무당식이는디로시행을하야라분부  
를하니무당년이음식을이곳저곳에다버려놓더니만곳시작을하는디방울을흔들고  
고함(高喊)을주며맛치목을죽방울놀듯섞늘며씩々거리고도라다나더니츠々발이  
부인의집근처로가가와셔는무슴쥬문(呪文)을익는것갓치중얼／＼하다가중문  
안으로쑥드러오더니담도등을허위적거리다가무슴조희쪽하나를어더들고신이  
쑥삭이면서어다가젖든조희를이단을쥬며「이것갓다가마々님보시게하고이제  
부터는근심과질고를다제쳤습니다고말슴하게이단이가밧아들고무녀와한가지로  
장씨의집으로도도라와더라이씨에부인은병든몸을겨우일어안적에의지하야동창에  
달빛을바라보며우연이심화가죽치못하야쉬여잇든불덩이가별안간또일어나며눈  
물이데영／＼듯는디병철의손을잡고탄식성(嘆息聲)을셔거「아모리싱각하야도  
너명이오리지아나할듯흔디춤아엇지너를두고간단말이나휘...병철이는호조라  
모친을위로하노라고「어머니안심하옵시요설마엇더하시겟습닛가하면셔중얼중  
얼웃는눈물을여지로춤고잇더니문득슬가온디에서작／＼신신으는소리가나며  
방문을가만히열고드러오는데이는병임이라얼마를울엇는지눈가이릉々붓고치마  
즈락이흠신져젖스며흑흑웃기면서겨우부인의깨문안을고하고무릎우에다낮출디  
며설음이거워셔말도못하고호손으로는부인의손을쥐고호손으로는병철의손을잡  
고오장이녹는듯안짜님을쓰며일향을고만잇다이를을당흔부인의수삼작놀녀여병든



손을겨우운동(運動)하야 병임의 전신을 어루만져보며 「어불스이니스 랑 것이 전에 업든 회적(回積)이 동하였나 어느 누가 따리더냐 말하여라 어미 속이 갑갑하다 아이고 전신이 모도 땀이 흘러서 목욕하고 나온 사람 같고 나디 판절이 깨웬일이란 말이냐 병철(病切)아 좀만 겨주어라 병임이가 겨우 진정이 되었는디 엿지 하야 이와 못치슬음이 북박쳐 말도 못하 면서 울기만 하는고 효렬(孝烈)이 쌍전(雙前) 병임이는 그 친모의 부당(不當)한 처사를 지성으로 간코져 하되 못지 아니 할 뿐이라 도려 허부인 모조 신상에 허가 될 줄을 세우고 의면으로 논심상(尋常)은 듯하고 닥심으로는 단히 주의 할 하야 모친의 동정을 숨히더니 흥모 와이단이 로더 부러의론을 하고 무녀로 하야 금 짐짓 곳을 탐지하고 이 못치건너와 서 늦겨울 미려라 병임이가 정신을 슈습하고 생각하니 「만일 사실 디로 고하다가는 병 든 가슴이 놀녀 위험(危險)한 일이 성길는지 도알 슈업고 또 부모의 흥이 드러 날터이니 잠간 권도(權道)로 고할 슈박개업도 다하고 요조(妖妖)도로 염용(斂容)하고 디답을 하는디 「공연(公演)이 마음이 비창하야 잠간 갇힌 벼슬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공연이 심난 할리가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 오라 앓가 소학(小學)을 넘습다가 서안(西安)의 지하야 잠 간조를 고잇습더니 홀연 하늘이 내려 안지며 싸이 문어지는 악몽(惡夢)을 엿습고 크게 놀나서 엿습더니 놀나온 가슴이 두근거리며 즈연 마음이 비창하와 이처럼 어마님을 보 이려 왔습니다 「아 허들이 잘아 갈씨에는 미양몽겁(夢劫)이 있느냐 라고 리번의 홀 것 이야 무엇잇느냐 관계치 아니하 다 병임이가 이 말슴을 듯더니 「이 병철아 나는 이곳

에 오릭더 무지 못할 형편이라 지금 건너가 거니와 너는 어마님 것들 떠나지 말고 극진이 되시고 잇거라 하고 부인의 게고 회(告退)한 후 비감(悲感)한 빛치 얼골에 더하며 방문을 열고 나가다가 다시 도라보며 참아 떠나기를 앓거하면서 「이 병철아 항하여 디가지 말고 잇거라 하는 거동이 전일과 유다르게 하더니 뜰에 내려서며 코푸는 소리 한번에 중문을 나갔더라 부인은 병임이 하는 양이 심히 슈상하디 감안이 생각하되 「무슴스고 가 잇서 그리하나 심히의심나는 일인디 하면서 병철의 손을 쥐고 탄식 만하고 잇더니 홀연 들으 니 장복임의 집에서 썰들 썰야 단스리이 벽적(壁積)하더니 언미 필에 부인의 집 중문 안에 서 왓지 썰겔하며 무엇을 가라치는지 「이것보아에 그 소름이 썰세 치네 말하 슈업는 겔 주거나 밧거나 썰겔 덩 병하고 무녀는 잇다가 「어서 갔다 보시게 하여 하니 싸이 단이는 좀알거리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잇서 하더니 한대 뭇게서 나가더라 이 경상을 당호 부인은 병인도 병인이 아니와 이왕 여러 번 놀닌 가슴이라 두근／＼ 떨는 하더니 숨을 을 겔디 지 못하야 두 줄 눈물이 썰루루 흘으며 병철이를 경계하는디 「이 병철아 너의 아바지마음이 참전일보다 변하얏고 나 우리 집이 무당판슈라고는 모르더니 엿지 하야 이 모양이 되었단 말이냐 너는 부디 다음에 이러 할 일을 행치 마라 대단히 올치 못 할 일 이다 이렇듯 모져서로 이야기를 하고 잇는디 이씨에 이 단이는 싸에 무뎛든 조희를 손에 들고 동동거리고 장씨의 방으로 드러가서 조희를 전하 며 「마마님이것 좀 봅시오 「그게 무엇이란 말이나 「지금 큰 대담안에서 만신이 어디 엿습습니다 「어디니 손에 노아라 좀



구경하자는고들고보더니 「아이개월일이야아모리밋다고이런혹악한짓도하냐  
면서방바닥에다탁녀여던졌다가도로집어서김잠의를쥘며」령감이것좀보시오「그  
것이무엇인티가지고그러느냐고맞아들고보니벽저흔장에다남녀두사람을그리  
고그것헤성월성시를씻스니이는김잠의와장씨를그린것이요또두어줄기록한것이  
잇스니이는다름이아나라악귀(惡鬼)의손을받아속히멸망식이라는의미라보기  
를다하더니얼굴이불그락누르락하며눈가이찌여절뚝기성이불갓치일어나서「이  
단아불으니까이단이가맛참방문뒤에기다려잇다가「네……호고장지안으로쏙드  
러스니김참의가이를밋돌갈듯하며손으로방바닥을치면서「이년네큰댁인지무슨  
댁인지흔다름에건너가서쇼위도런님짜리라는것을못볼너오너라이말을듯고이단  
이가건너가서병렬이를볼너오니김참의에호령소리가뒤산이울죽／＼마당이셀셀  
／＼접이곳짜나갈듯키셔두르니병렬이는엇지된일인지도알슈업고가슴이두근々  
々감히쳐다보지도못하고장초빛게가서잇더니김참의가소리를버럭또질으며  
「이놈아너의어미가웨이러듯혹하야졌느냐근리에보닛가모양이뚝뚝에늑듯하더  
니필경은제갑슬하로고나미우면한사람이나밋갓지나는무슨일로죽이라한다더냐  
가장으젓고올은일하는체하고흔들고서올을가더니가합한사람이라고제손으로  
구궁야다둔것이이런투기(妬忌)를할때가업셔두고／＼독살투리하자고어더너려  
왔고나무슨짓을못하야사람을죽이라고방지를하야전일에는그런비가업더니요근

년으로밋친기혼이씨엿고나소당은너의모자를아조니철일이로되나논팔이드리곱  
아서아죽머물너두는것이니씩건너가고다시니압해오지도마라장씨는가장말니는  
체하야「령감그만두오그만하야도중계(懲戒)가되엿소또그런일을하오릿가이것  
을당할병렬이는하도기가노니가슴이벌／＼어안이병병하고다만두눈에서눈  
눈물이폭우(暴雨) 쏟아지듯하는것을여지로참으며황황금급히쥘숨듯집으로도라  
와어머니압해탁거구러지며아모리무려도혹혹하는바람에못는말되답도못하고  
굿칠수가업시평평쏘다지는눈물은분슈기(噴水器)에솟는물못치잠시동안에방  
바닥에홍그니고야잇더라이씨에부인은병철이를보낸후속으로성각하되「즈식이  
라고평일(平日)에흔번도볼너다보논일이업더니그야단법석뭇해볼너가는것이슈  
상도하고또그이단이년서두는것이더욱의심이나서마음이노이지안고나아지못  
케라이무슨연고인고하며의간장이말나서어병철이오기만기되리고안젓더니홀  
연드르니장씨의집에서황소령각하는소리처럼외마디소리가삼동니가떠나갈것이  
나더니거무하에병철이가술리의쫓기인병아리처럼잡담제하고왈악달녀들며압해  
와서썩쓰러지더니「아이고어머니이일을엇더케하오다만한소리뿐이오아모리무  
려도올음이압질너디답도못하고오렐비음(嗚咽悲泣)만하는지라이경광을당할병  
철의모는병든몸을여지로운동하야병철이를만져일으키면서「필시무슨변괴가성  
것나보다앗가병일이하는거동이슈상하고도의심이나더니별안간곳인지무엇인지



법석을 할더니 무녀와 이단이 가중문안에서 셋째하던일이 과연심상치아니 혼무슴독  
계(毒計)를 베풀었으나 아이고 엇지 하면 죽단 말이냐 하면서 원통 혼물이며 비기에 흘  
으며 순덕이는 것해 되시고 있다가 부인을 구호하야 저리에 누인 후 병철이를 안아 일으  
키며 「도령님(道令任)마님께셔 도령님이이 도록을으심을 보시고져와 곳치비 감하야  
하시니 병환 더덜치시겟소을을 뜻치시고 일어나셔요 말씀이나 시원이 하시야 무  
슴일인지나 아시지요 그만 곳치세 요홀쳐 /」 늦기면서치마 폭으로 눈물을 씨겨 주니  
병철이가 겨우을을 곳치고 부친의 하든말씀을 일일히 다고 하니 부인이 이 말을 듯더  
니 얼골이 서파리지고 숨이 탁막히며 동의 덩이 곳 혼 불덩이가 발뒤축에서부터 명문에  
(命門)까지 치바치더니 다 만흔소리로 「아이고 이지 원극 통혼일을 엇지 하면을 탄말  
이나 휘흔 번목제비질덜컹하더니 미역국에 밀슈제비 덩이 곳 혼 피뭍치가 물큰 /」 나  
온다 병철이의 순덕이는 엇지 홀출을 모르고 유모는 급히 밧그로나 가서 닝슈를 찌다가  
홀녀먹인다 소금을 가져다드리터린다 황망이셔 두르더니 그 화병에 물 쏟듯 하든 선혈  
(鮮血)은 겨우 곳쳤스나 인하야 혼절(昏絶)하니 병철이가 망극하야 통곡을 할면서 슈  
십분 동안을 응급구호(應急救護)를 하되 조리호협이 업서 필경 엇지 할슈 업는디 경에  
일으는 지라 출던지 호병철이는 안고 있든 어머니를 듯코 밧그로 왈악 썩여나가 더나도  
마우에 잇는 식도(食刀)를 잡아 들고 눈물이 옷깃을 적시우면서 왼손 무명지(無名指)  
를 도마에다 듯코 하늘씩 압축하고 번기 곳치 한번느리치니 싹어져나가는 손마되는마

딩기에 가껴려지며 한줄기 붉은피는 효조의 손에서 소스나니 병철이가 급히 방으로 드  
러와 어머니 입에 흘리며 「어머니 정신을 좀 회복하옵시오 어머니 정신이 웨아니 남넋  
가 든지 혼피가 드러가면 죽다가도 곳회성 혼다 고네 전보려느려오는 말인디 웨엇디 것  
숨소리가 업서 요입에다 귀를 다하고 지성으로 듯고 잇는 병철을 하늘이 엇지 도라보지  
아니 하시며 부인의 명을 엇지 하로를 더 빌녀 주지아나 하시리 오명이 다진 하든 부인의 가  
슴이 초초온기(溫氣)가 성하야 나며 목구개서 실낱 곳 혼 숨소리가 들니 넋가 실성 통곡  
을 하든 병철이가 울음을 곳치고 도로 허깃분 마음이나셔 「어머니 눈쓰시고 날을 좀 보  
셔요 아이고 이제 눈어 마님께셔 도로 살아나셨고나 어머니 /」 저리 도라누옵시오  
웨나를 몰나보셔요 밤에다 코를 티고 손으로 명문을 만지고 잇는 형상과 저고리 소리로  
눈물을 씨스며 후후는기는 소리는 눈이 잇고는 참아보지 못하겟고 귀가 잇스면 참아듯  
지 못홀녀라련화극락계(蓮花極樂界)로 도라가든 병철의 모친은 도로 발길을 돌쳐  
인간길로 향하니 정신이 초초 회복이 되어 간숨 혼번에 몸을 도라누으니 병철이는 깃분  
마음을 익이지 못하교 순덕이는 더운물을 맛춤에 비하얏다가 조곰식 /」 홀녀너엇더  
니 한시간 후 썩되여아 조완성 하엇더라 이세에 장씨는 게교가 여의하게 되고 또 부인이  
도혈 혼절 하엇다는 말을 듯고 만심 환희하야 동엇던 머리를 글으고 쓸치고 일어난면서  
「령감구시는 것이 참 신통은 하오 그러케 독괴로 되는 듯시 썩시고 압흔 머리가 그림  
조각 초더낸 후이 갖치 밧서 갑여울 줄은 참 싹밧기 구려 그러느령감이 어서 일어난셔야



홀라인데 「도」도「은」은「미」우「은」은「모」양이다 참 귀천의 병이라 하는 것이 얼자아나 혼란이  
다 일던 그 몸슬년예 방속에 들어 있슬 때에 는 곳 당장을 듯이 사람 들고 는 것을  
모르겠더니 오늘날 당여셔 는 이만 하여도 못 들듯 하고 는 「아」모르든 지 그 집과 는 아 조  
담을 싸야겠셔 「아」그럼 또 다시 상관을 하여 그런지 해업 는 사람 이어 티잇슬가 그  
러기에 병철이놈 사자아 조 못 오게 하였지 따 리는 상던 보 덤 말 리는 종 이 더 밍드 고 그놈  
이 더 말성 군이야 「원」악도 박한 밤해 풍년 곡식 날 는 고요 「그」런 고로 는 고 고 는 아 조 남 이  
되고 겨우 시량이 는 연명도 록 이어 주고 죽 든 지 살 든 지 누가 알 비 가 있 는 나 어셔 「아  
달」이 는 「하」는 「하」라 승적(承嫡) 이 는 「하」게 이 와 갓치 관 관 스령의 수작을 하며 장 씨 는 분  
면(粉面) 을 조 조 들 어 아 름다 운 티 도 를 보 이 면 셔 아 첩 는 말 이 무 소 부 지 하 더 라 이 셔  
에 부인 은 혼 동 안 혼 수(昏睡) 하 더 나 겨우 넋 딩 신 이 회복 은 되 었 스 는 옛 근 심 과 셔 셔 를  
이 을 화 를 못 처 니 여 살 은 니 가 숨 이 요 독 는 니 간 장 이 라 실 닳 갓 혼 쇠 잔 혼 목 숨 이 멎 시  
각 이 남 지 못 혼 줄 짐 작 하 고 처 연(惻然) 이 병 철 의 손 을 잡고 「원」통 혼 스 니 이 이 요 불 상 키  
는 네 신 세 라 니 가 런 만 의 외 에 너 를 만 득(晩得) 으 로 나 어 셔 병 중 에 길 은 지 가 어 연 간 열  
두 희 가 되 었 는 데 이 러 듯 어 러 히 동 안 에 지 니 여 오 는 너 는 신(辛) 苦 가 웃 시 되 고 곤 난  
(困難) 이 밤 이 되 어 일 신 상 하 썩 썩 마 다 풀 지 못 혼 을 티 져 스 니 원 역 인 들 오 작 하 라 만  
은 는 날 이 무 심 하 고 귀 신 이 덩 이 업 셔 당 하 나 니 디 옥 고 초 요 보 고 듯 나 니 만 단 시 름 이 라  
이 를 장 초 었 지 하 며 압 길 이 망 하 데 업 더 질 지 뒤 처 질 지 가 망 이 면 허 업 는 중 천 성 에 업

원 인 지 초 성 에 원 수 미 셔 병 중 에 곤 혼 목 이 풍 연 에 등 화(風前燈火) 갓 하 야 육 멸 육 성 님  
은 잔 명 이 아 마 도 오 리 지 은 못 혼 모 양 인 즉 미 성 하 고 불 상 혼 너 를 두 고 참 아 었 지 눈 을 감  
잔 말 이 나 그 러 나 니 가 너 를 가 르 천 바 는 숨 강 오 룬 이 라 부 터 나 죽 은 후 라 도 성 인 의 유 혼  
(聖人遺訓) 을 더 바 리 지 말 고 덕 성 을 도 야(德往陶冶) 하 면 덩 령 코 감 안 혼 가 운 티 에 저  
연 잇 슬 러 이 니 이 것 이 네 일 신 을 더 귀 케 는 방 법 이 니 착 혼 일 을 행 하 면 위 티 흠 이 구 을  
너 편 안 흠 이 되 고 악 혼 일 을 행 하 면 편 안 흠 이 변 하 야 위 티 흠 을 짓 나 니 라 슬 푸 다 너 를 성  
각 하 는 마 음 을 디 하 게 도 라 간 들 어 이 가 버 우 며 이 호 혈(虎穴) 중 에 드 너 를 두 고 춤 아 었  
지 가 잔 말 이 나 혼 놀 이 가 련 이 보 스 아 모 조 록 보 중 하 고 지 효 로 부 친 을 섬 기 면 필 시 마 음  
을 돌 으 켜 셔 가 잇 슬 러 이 니 조 금 도 부 랑 방 랑(浮浪放蕩) 혼 마 음 을 두 지 말 지 어 다 네 가  
너 말 을 성 심 으 로 직 힐 진 티 명 명 지 중 에 셔 도 눈 을 감 으 리 라 인 하 야 혼 숨 을 싸 히 셔 지 도  
룩 쉬 며 병 철 의 손 을 쥐 여 다 가 가 숨 에 다 티 이 라 하 다 가 소 소 략 쳐 놀 니 여 「아」이 고 이 것  
이 웬 일 이 나 왜 손 가 락 하 나 이 업 셔 져 는 나 무 엇 에 닳 치 었 는 나 말 하 여 라 병 철 이 는 주 며  
「하」며 말 을 티 답 자 아 나 혼 드 부 인 이 기 가 막 혀 눈 물 을 지 며 「네」가 티 답 을 아 나 혼 셔  
에 는 필 시 무 습 스 고 가 있 나 보 고 나 병 철 이 가 감 이 속 이 지 못 하 여 「그」런 것 이 아 나 혼 셔  
앗 가 어 마 니 세 읍 셔 잠 간 혼 철 을 혼 읍 시 기 로 조 식 의 도 리 에 안 연 이 잇 슬 수 업 스 와 넋 말  
을 의 지 하 야 단 지 을 혼 읍 습 니 다 「아」이 고 이 게 웬 말 인 야 몸 슬 년 의 팔 조 르 구 나 쓸 데 업  
는 일 루 잔 명(一縷殘命) 이 실 이 지 안 코 이 섰 다 가 볼 수 업 는 참 혹 혼 일 을 불 상 혼 네 게 드



또 제쳐 주었고 나 응... 더 것 시 참 아 홀 일 이 나 또 리 차로 말 하 여 도 다 씌 혀 가 는 목숨 을  
두 어 방울 피 로 이 여 질 리 가 있 겠 는 나 아 모 리 나 히 열 인 들 이 갓 혼 미 신 (迷信) 을 흥 흥 단  
말 이 나 는 면 서 흥 격 이 터 지 는 듯 상 처 (傷處) 를 다 시 만 더 보 며 비 감 하 여 나 오 는 탄 식 은  
소리 (가창조가 씌 어 지 고 시름겨워 솟 는 눈물 은 방울) 이 추 우 가 처 처 (秋雨懷  
懷) 하 드 이 릇 듯 백 감 (百感) 중 에 서 수 일을 지 니 여 오 던 부 인 은 홀 연 심 장 마 비 (心臟癱  
痺) 가 되 더 니 드 티 여 운 명 하 였 더 라 이 때 는 구 역 스 월 십 오 일 (舊曆四月十五日) 상 오  
십 일 시 (上午十一時) 라 병 철 이 가 기 가 막 혀 는 을 보 루 지 으 며 망 극 의 통 하 며 유 모 와  
순 덕 이 도 드 을 고 지 어 동 리 스 람 사 지 라 도 눈물 을 흘 니 고 혀 를 주 면 서 「에... 불 상 하  
고 원 통 하 다 었 던 스 람 들 은 말 하 기 를 「제 상 에 이 릇 일 도 있 나 에 참 하 는 도 무 심 하 시 지  
제 일 더 어 릇 것 이 불 상 하 여 었 지 하 나 는 면 서 불 상 이 여 기 고 눈물 을 금 치 못 하 는 데 무 덩  
흔 김 창 의 는 신 병 이 있 다 칭 탁 하 고 와 서 보 지 아 나 는 며 다 만 박 흥 모 를 보 니 여 초 종 럽 습  
을 분 별 하 여 전 산 에 안 장 케 하 더 라 이 때 에 병 철 이 는 불 철 주 야 로 슬 혀 통 곡 하 다 가 장 일  
을 당 할 디 부 친 은 칭 병 (稱病) 하 고 다 만 박 흥 모 가 와 서 거 취 를 하 는 지 라 설 고 도 야 속 하  
나 었 지 홀 수 업 서 상 복 는 가 촌 후 에 소 방 산 들 우 에 다 릇 지 에 켜 지 아 나 홀 방 혼 (芳魂)  
을 실 고 북 망 산 시 벽 달 에 히 가 (殲歌) 호 소 리 로 영 결 을 하 고 도 라 와 더 라 슬 푸 도 다 금 옥  
갓 처 스 랑 을 바 들 신 세 가 도 로 혀 혀 무 의 (子子無依) 하 게 된 병 철 이 는 모 친 을 영 원 이  
눈물 노 하 주 하 고 집 으 로 도 라 와 서 제 연 (几筵) 을 배 풀 고 조 석 호 곡 으 로 늘 을 보 니 는 디

식 음 이 맛 시 업 고 성 각 나 나 모 친 이 라 가 련 혼 초 최 혼 이 몸 에 유 모 에 게 의탁 이 되 여 었 더  
라 초 시 에 병 임 이 는 부 인 에 게 단 여 온 후 로 가 숨 이 죄 이 고 이 간 장 이 말 으 나 었 지 홀 수 업  
서 동 정 만 숨 혀 보 며 밤 에 잠 을 나 즈 고 시 々 썩 々 로 병 철 의 집 소 식 을 었 보 더 나 호 로 는  
부 르 조 지 는 소리 가 귀 에 스 못 치 거 늘 쌔 짝 놀 니 여 담 밋 헤 가 서 귀 를 디 이 고 들 으 니 호 호  
라 부 인 이 기 세 하 였 도 드 별 안 간 덩 신 이 앓 득 하 며 는 이 발 밋 헤 잇 는 지 짜 이 머 리 우 에  
잇 는 지 가 숨 이 썩 에 지 고 숨 이 막 히 더 니 두 줄 눈물 이 장 마 침 하 에 락 수 듯 듯 「아 이 고  
어 마 니 게 우 호 소 리 를 감 이 크 게 도 못 하 고 방 안 으 로 와 당 당 들 어 오 더 니 만 은 요 호 별 닐  
여 짚 고 버 키 에 업 드 러 오 장 이 녹 듯 이 속 으 로 만 듯 거 우 니 목 이 막 쉬 고 두 눈 이 동 동 부 으  
며 피 절 하 기 를 몇 번 이 나 되 었 스 되 구 하 여 줄 스 람 도 업 더 라 이 때 에 장 씨 는 병 임 이 가 압  
해 업 습 을 보 고 이 단 이 를 볼 니 「네 뒤 방 에 좀 가 서 보 아 라 소 더 (小姐) 가 었 지 하 여 점 심  
(占心) 때 가 되 여 도 그 림 조 도 보 이 지 안 는 나 이 단 이 가 뒤 방 으 로 와 서 보 니 버 키 에 폭 업  
되 여 잇 는 지 라 기 침 을 각 하 며 「아 가 씨 왜 었 기 것 아 나 오 심 닌 가 점 심 잡 슈 시 요 「앗  
가 부 터 리 가 압 파 서 누 었 스 나 조 곱 잇 다 가 나 가 마 이 단 이 가 이 디 로 와 서 고 하 나 장 씨 는  
면 혀 아 지 못 하 고 심 상 이 여 기 더 라 병 임 이 가 이 단 이 를 보 닐 후 감 안 이 성 각 하 다 「큰 집  
어 머 니 를 좇 초 황 천 (黃泉) 길 을 찾 조 하 니 성 조 하 읍 신 부 모 의 게 불 효 를 제 침 이 오 불 효  
를 제 치 는 동 시 에 병 철 의 신 세 가 었 지 되 줄 을 알 수 가 업 스 죽 죽 을 수 도 업 고 아 나 죽 자 하  
니 되 시 여 퇴 읍 고 심 혼 마 음 을 일 시 라 도 었 세 키 가 어 려 온 디 쇠 털 조 치 만 은 날 에 어 이 참



고스 잔말인가 이리저리 두루 생각할 수 도 없고 살 수 도 업스즉 이 노릇을 잊지 않으면 조탄말인가 흐르는 눈물을 써서 가면 셔김히 〈〉 생각할 다 가 망연(猛然)이 서다라 심스를 청하고 다시 정신을 가다듬은 후 연한 띠도로 비창을 빗을 보이지 아니하고 은근히 과미(機微)를 숨히며 비밀이 주의 할야 낮이면 중인의 행동을 엿보고 밤이면 오경(五更)이 넘도록 잠을 아니 자고 병철의 집담 밧그로 몇 번씩 순행(巡行)을 할니 원리 병임에 거처하는 처소는 장씨의 집 뒤방이요 병철의 방 창 밧인 즉 곳 병철에 집담 밧기라 그런고로 숨혀 보기에 미우 용이 할다 하로는 창을 열고 병철이 집을 바라보고 안젓스나 늦게 오르는 금음 달은 밧서 오경이 되었는디 스면이 요적하고 다 만들니는 나지키(階々)한 먼 촌 두어 닢이라 여지로 심회를 진정하고 곤한 몸이란 간을 의지 할야 조름이 막을나 말나 할조음에 언듯 드르니 압마 당가 온디에서 신신은 소리 가 「자박」 「풍편(風便)에 들니 거늘 삼씩 놀니여 소쇼라 처일어 안져 생각하되 「이 고요한 기쁜 밤에 박락성(剝啄聲)이 어인 일고 잠안사름 못흐면 감안 〈〉 필을 리가 업슬터인디이 필시 도적인가 고이 할고 이상 할다 부억 모둥이로 감안이 도라와으 속한 곳에 몸을 숨기고 여어 보나 달빛은 희미한디 처마 자락이 너 펴 〈〉 하며 스랑 중문으로 드러가 셔 창문을 딱딱 두다 리더나 문을 열어 드린 후에 창을 도로 닫고 촉광(燭光)이 은은한 거늘 속으로 헤오되 「우리 집에 절문녀 조라고는 모친과 다 만이 단이 뵈인디이 오경 기쁜 밤에 남조의 처소로 나 오는 일이라 자 못게 라이 무슴 일인고 이 아니 병철이 신상에 관계나 업는 일인

가 그러치 아니 할면 응당은 밀한 관계(隱密關係)로 다규시 절청(窺視竊聽)은 고인에 경계하는 비로 디 일 단 정신이 병철이의 게잇스즉 탐정을 아니 치 못하리라 하고 감안 스창아 리에 와서 귀를 기우리고 듯고 있다 디져이 었던 사름이 녀조의 체면(體面)을 도라 보지 아니 할고 조각 달서는 밤에 무란이 남조 실로 드러오는 고 못그럼이 전혀 업는 음녀 장씨는 독계를 부러 부인을 조진케 할 후 기분마음을 익이지 못하나 항상 심니(心內)에 죽지 못 할 일이 잇셔 눈섭을 찡그리고 연구 할기를 마지 안터니이 높은 우연이 잠을 일우지 못하고 전전 반척 할다가 박흥도와 의론조로 창문을 난조시 열고 스랑으로 나 오는 디이 셔맛 참김 참의는 술이 디취 할야 곤히 잠이 들엇더라 감안 〈〉 중문을 나와 스랑 창문을 딱딱 켜 〈〉 「문 좀 열어 처시에 박흥모가 잠을 막쳐 셔셔 셔 창에 쇠잔한 달 빛을 구경하더니 창문을 두다 리는 소리를 듯고 「게누구야 「니요 「아이 코니 마 스님이로 군 급히 불을 켜고 문을 열어 마진 후에 옥수를 잇글면서 「출심(春心)을 익이지 못하야나 왔지 「날마다 보고는 비불은 게 보지 만 설상은 여려늘 겨조(隔阻)도 할고 또 의론 할일이 도잇셔셔 「웨무슴 할말이야 복임이가 아미를 꼭 수구리고 단식한 번을 할다 「모든 일이 다 계교와 조치 되야 셔심 분다 할고 게 되엿스되 할가 지눈에 가셔 조흔 일이 잇셔 항상 세립 할야 못 견디 겿셔 속담에 이르기를 구은 게 다 리를 떼이고 먹으린는 디이를 장조엇지 할면 나의 마음이 아조거리 셴것이 업시 한평생 유쾌(愈快)할게 되여이 말을 듯고 잇든 박흥모는 무를 문지르며 눈을 나리 감고이 유히 생각을 할다니 장씨의 손을 잡으